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11월 3일(주일) 제1268호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Together 함께'

11월 6일과 7일 구마모토 시민회관시어즈홀유메홀
교회세미나, 가스펠나이트, 리더십 포럼, 러브소나타 집회

드디어 이번 주 러브소나타 구마모토가 막 오른다. 러브소나타 구마모토는 'Together 함께'를 주제로 11월 6일과 7일 구마모토 시민회관시어즈홀유메홀에서 열린다. 11월 6일 오전 9시 30분 열리는 교회세미나가 포문을 연다.

박종길 목사, 이기복 목사, 김하중 장로 등이 강의한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가스펠나이트 구마모토가 이어진다. 구마모토 교계가 준비한 러브소나타 전야제로 현지 크리스천들이 다시 한 번 예수 앞에 바로사기를 결심하는 자리다. 설교는 마츠오 켄 목사가 한다.

11월 7일 오전 11시에는 리더십 포럼이 진행된다. 한국과 일본의 리더십들이 교제하는 장이다. 오후 7시에는 대망의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집회가 시작된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테너 배재철, 기타리스트 안토니오 코가, 소프라노 김영미, 플룻연주자 송솔나무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구마모토는 규슈 중앙에 위치한 도시다.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다. 면적은 390.32Km², 인구는 740,068명이다. 크리스천 인구는 1,795명, 교회는 91개가 있다. 이 중에서 20여 개 교회는 무목교회다. 에도 막부 250년 크리스천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신앙을 지킨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러브소나타 구마모토는 현지 크리스천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개최하게 됐다. 러브소나타 후쿠오카에 참석했던 구마모토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러브소나타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지역교회가 연합하고 부흥하는 것을 목도하고 구마모토에서도 집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장 나카타 목사는 "구마



사진은 지난 5월에 열린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모토 시민들이 예수님게로 돌아오고, 현지 교회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가 연합하고, 협력해서 모두 다 함께 부흥할 수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5주년 감사예배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오늘(3일) 창립 15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오전 9시와 11시 30분 남양주 온누리교회 3층 본당에서 진행된다. 9시에 드리는 감사예배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백진주 교수가 특송을 한다. 11시 30분에 드리는 예배에서는 이해영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설교하고, 남양주 온누리교회 국악팀 한선이 특송 한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교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지점으로 장미꽃을 만들어 교회 로비를 장식했다. 또한 'Thank you 15'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포토존도 마련했다.

Love Sonata 구마모토
Lumamoto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유튜브 생중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Onnuriservice>

11.7(목) 19:00-21:00

강사: 이재훈 담임목사
게스트: 배재철(테너), 김영미(소프라노)
안토니오 코가(기타리스트)
송솔나무(플룻연주자)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요한계시록 3:7-13 (11월 7일 본문)
본문 주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라)

영상제목: 나의 달려갈 길 - 존 피아퍼 목사
내용: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각 사람의 사명이 다 같은 형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았을 때 의의 면류관을 왕의 왕께서 씌워주실 것입니다.
적용질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들고 싶은 칭찬은 어떤 칭찬인가요?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com/Sp8DU0a739E>



CGNTV SOON

유튜브에서 'CGNTV SOON'을 검색하세요

2020년 온누리교회 파트교역자 청빙

2020년 온누리교회 파트교역자를 청빙한다. 모집분야는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인천, 강동 온누리교회 차세대, 대학청년, 예배(찬양인도자)다.

자격은 1980년 1월 이후 출생자로 정규 대학 및 신학대학원 MDiv. 재학 및 졸업자, 교육대학원(기독교교육 전공) 재학 및 졸업자로 목회의 소명과 인격을 구비한 교역자(MDiv. 재학 이상, 또는 신학/기독교교육 학부 전공 후 M.A. 또는 MACE 재학 이상인 자)다.

11월 9일(토) 자정까지 필요 서류를 구비해서 이메일(onnurihr@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215-3233

"엔젤트리 주인공을 찾습니다!"

오늘(3일)까지 사연신청서 접수

아직까지 엔젤트리에 사연을 보내지 못한 성도들은 서둘러야 한다. 오늘(3일)까지 2019 엔젤트리 사연을 받는다. 온라인(naver.me/G082bTcR), 교회 로비에 설치되는 사회선교 데스크, 목회지원실에 엔젤트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대상자의 사연, 3~5만원 내외의 선물, 도로명 주소, 연락처, 관계 등을 적으면 된다.

엔젤트리에 접수된 사연은 11월 24일(주일)부터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로비에 전시된다. 성도들은 전시된 엔젤트리 사연을 무작위로 뽑아 기도하고 선물을 보내면 된다.

지난해 엔젤트리에서는 뇌성마비 장애인 은혜(가명, 8세)에게 학용품 세트를 전달했고, 중보기도가 이어졌다. 아با를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하늘(가명, 8세)이에게는 바디필로우를 선물했다. 온누리교회는 2015년부터 엔젤트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매년 후원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2,045건, 2016년 1,505건, 2017년 2,598건, 2018년 3,729건의 사연에 중보기도와 함께 선물을 보냈다. 문의: 02-3215-3436, 3434



책 읽어주는 목사

하나님의 마음과 청지기의 마음



〈냉정한 이타주의자〉

윌리엄 맥어스킬 저 | 부키 | 16,000원

남아프리카인 트레버 필드는 매우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 이 남성이 어느 날 선행 아이디어를 발견한다. 그것은 ‘플레이펌프(Playpump)’인데 아이들이 일명 ‘뽕뽕이’라고 부르는 놀이기구와 펌프를 결합시킨 것이었다. 플레이펌프는 아이들이 놀이하듯 뽕뽕이를 돌리면 펌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삶에 필요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만든 기구다. 이 기구는 물 부족을 즐겁게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

개되었다. 플레이펌프는 많은 이들에게 선행한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급기야 플레이펌프 캠페인이 시작되었는데 유명인들의 SNS와 신문방송을 넘어서 정치인들까지 합세한 커다란 선행 운동이 되었다. 플레이펌프가 아프리카 각지에 설치되었고 수백만 달러가 모금 되었다. 하지만 몇 년 후 실사단이 플레이펌프가 설치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도 더 이상 플레이펌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플레이펌프를 돌리는 아이들이 빨리 지치고, 여성들에게도 일이 되었다. 일반 펌프보다 낮은 효율 때문에 플레이펌프는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폐물이 되었다.

이 책은 선행한 일을 하는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선행한 것을 위한 행동이 반드시 옳은 것인지 묻는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청지기로서 부름’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준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정복한다. 또한 이 명령은 창세기 명령의 연장선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청지기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길을 떠날 때 세 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한 달란트는 노동자 20년 치 급여에 해당), 2달란트, 1달란트를 주

고 떠난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벌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에 묻었던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 행동에 대해 주인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져 온 자에게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과 이 책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청지기는 ‘맡은 자’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되 자신의 맘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방식대로 관리해야 한다. 그 의미로써 선행한 일을 하는 것은 옳으나 선행한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주인의 것을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소명을 무시하고 그대로 두는 일은 청지기로서 잘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벧 2:13)이시다. 하나님의 뜻인 소원을 잘못 관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받은 자가 선행 목적으로 현실성 없는 사역과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플레이펌프를 만드는 청지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청지기는 ‘종’이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가 불의로 재물을 불렀다면 주인이 칭찬했을까?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주인의 뜻 안에서 행했던 빛진 종을 칭찬한다. 교회는 효율성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곳이 바로 교회다. 때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재정과 노력을 쏟을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전부 허비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행하는 곳이 교회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플레이펌프와 같은 비효율적인 일을 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가까이 플레이펌프를 돌리는 곳이 교회다. 세상과 구별된 기준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청지기는 명심해야 한다.

나는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를 원한다. 천하를 주고도 한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역과 일터에서 냉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추천한다.

김성웅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Q 4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꼭 교회에 나가야 하나요? 집에서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답: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영적인 양식을 받기도 하고, 성도들과 도움을 주고 고받으며 성장하기도 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는 믿겠지만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꼭 교회에 나가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 말해줘야 한다.

첫째,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가 주는 젖이나 분유를 스

스로 먹을 수 없다. 반드시 주는 것을 받아먹어야 한다. 이처럼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도 젖과 같은 영적인 양식을 받아먹어야 하는데 그 양식이 바로 주일에 교회에서 듣는 목회자의 설교 말씀이다. 조금 성장한 어린이와 중 고등학생들은 스스로 식사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혼자서 식사를 하면 편식하게 된다.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어린아이나 청소년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반드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인은 완전한가? 그렇지 않다. 성인이 되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듯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둘째, 성도는 함께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들을 가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붙어있으라고 하셨다(요15:5).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

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몸의 각 지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4-5).

만일 손이 없다면 음식을 어떻게 입에 넣을 수 있을까? 만일 발만 있고 눈이 없다면 어떻게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 이처럼 입 혼자 발 혼자 살 수 없다. 모든 성도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도 함께할수록 유익하다.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깊은 우애를 나누며 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다. 이 말씀도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 13:34-35).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롬 12:4-5, 고전 12:26-27)이다.

장경문 장로
(온누리전도학교, 양촌공동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9~10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질문이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단장을 하지만, 영혼의 얼굴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질문 앞에 담대하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위대한 발견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은혜는 핍박자였던 자신을 전도자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핍박자를 전도자로 바꾸는 변화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은혜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서운 채찍은 옳은 일을 하도록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옳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은혜만이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는 자신이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

며칠 전 난민선교를 하는 사역자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신 한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유스프라는 분인데 그분은 원래 이슬람 학자였습니다. 이슬람계를 사상적으로 이끄는 엘리트 중 한 분입니다. 프랑스 전 대통령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슬람 자문이었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도록 프랑스에 있는 모든 이슬람을 이끌어 지지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분에게 여섯 살 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고 누군가 곁에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슬람 최고 학자인 그분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한 시간 반 후에 다시 딸이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딸이 죽었던 모습과 살아난 이후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회심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뒤로는 알카에다 같은 단체를 지원하고, 겉과 속이 다른 지도자였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성경을 공부하고, 인터넷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많은 이슬람교도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이 시대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딸의 기적적인 소생을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대적자, 핍박자, 철저한 이교도 지도자들까지도 변화시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지만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의 2/3가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준 복음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않습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등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나는 전했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발견을 하고, 그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고,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고백을 모두 무력화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고백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까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고 고백합니다. 9~10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나는 전했을 뿐”이라고 고백을 한 이후 다시 12절부터 58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샌드위치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구조로 썼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글을 쓰면서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것입니다. 자신이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받았던 많은 고난, 오해, 상처, 아픔, 테러의 위협들, 수많은 죽음의 위기들을 돌아보면서 깊은 상념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고백을 적으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복음 전파 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었으면 동족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호를 받고 숨어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로 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테러의 위협을 당했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가 과거에 핍박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상처, 아픔을 모두 뛰어넘고도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깊은 고난 속에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쁘게 참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받은 고난을 기쁘게 참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다녔던 여정은 오늘날에도 여행하기 힘든 지형입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을 다니는 3차에 걸친 이 긴 여행은 오늘날 비행기와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벅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지칩니다. 예루살렘만 가시는 분들은 수월하지만,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 버스로 10시간을 가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형을 그 시대에 다닌 것입니다. 물론 로마가 닦아 놓은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고통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참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와 동일한 고백이 있다면 승리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 받지 않는 방법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신앙고백을 쓸 때 지나온 여정에 있었던 상처, 아픔, 수치심을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치를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상처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믿음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처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쓰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치스러운 평가를 받았을 때 자기 스스로도 그 평가를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부당한 이유로 나를 수치스러운데 처하게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깊이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습관처럼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면 “노 팽큐”하고 받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기획_교회, 세상문화를 말하다

할로윈,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해석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놀이문화로 인식하고 따라하는 건 지양해야

지난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Halloween, Hallowe'en, All Saints' Eve)였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기괴한 분장을 하고 벌이는 축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태원이나 홍대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10월 마지막 주말(올해 10월 26일) 할로윈 축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할로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할로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해석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할로윈이 어디에서 기원했고, 그 의미가 무엇이며, 크리스천들인 우리는 그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살펴봤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K자매(41세, 직장인)는 지난 주말 이태원에 갔다가 매우 놀라고 당황했다.

“말로는 들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눈알이 튀어나오고, 몸에 칼이 꽂혀있고, 피칠갑 분장을 한 사람들이 거리에 가득하더라고요. 웃은 또 어땡고요. 변장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경 온 사람까지 인파가 어찌나 많던지 누구 하나라도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겠더라고요.”

P형제(40세, S브릿지공동체)도 지하철에서 할로윈 분장을 한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하철을 났는데 입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좀비처럼 끔찍한 분장을 한 젊은이들이 타더라고요. 근처 놀이공원에서 할로윈 이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기괴한 분장을 한 사람들을 보는 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할로윈은 매년 10월 31일 만성절(All Saints' Day; 모든 성인들의 완전한 덕과 위대함을 찬미하는 축일, 11월 1일) 바로 전날 미국 전역에서 유령이나 괴물 등으로 분장하는 축제다.

호박으로 잭오랜턴(Jack-o'-lantern; 호박에 유령 모습을 조각한 등불)을 만들고, 유령, 마녀, 괴물 등으로 분장한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트릭 오어 트릿!(Trick or treat: 맛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어른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사탕이나 과자 등을 아이들에게 나눠준다. 해골이나 잭오랜턴, 검은 고양이나 거미 등의 장식물로 집과 정원을 장식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할로윈축제는 소비와 지출이 크리

스마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정도로 큰 이벤트다.

할로윈의 역사와 그 유래

할로윈의 역사는 2천년을 훌쩍 뛰어넘는다. 할로윈은 우리나라의 동짓날과 같은 서양의 절기인데 죽음의 신에게 안녕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던 켈트족 전통에서 유래되었다. 할로윈은 기원전 500년 전, 아일랜드에 거주하던 켈트족의 삼하인(Samhain)축제가 그 기원이다.

켈트족은 1년의 주기를 겨울-봄-여름-가을 순으로 바라봤다. 한 해의 첫 번째 계절인 겨울의 시작을 11월 1일, 그 전날인 10월 31일을 마지막 날로 정하고 삼하인 축제를 했다고 한다. 삼하인은 죽음의 제왕인 사면을 섬기는 의식이었다. 우리 식으로 선달그믐, 동짓날과 비슷하다. 한 해의 마지막 날 그해 가을의 수확에 감사하고, 축하하며, 풍요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악령과 악마를 몰아내고, 새해 행운과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을 올린 게 바로 할로윈의 기원이다. 유령, 괴물, 마녀 등으로 분장하는 것은 악령을 쫓아내려는 의식 중 하나이다.

할로윈의 기원 중에는 가톨릭 유래설도 있다. 매해 11월 1일은 만성절로 가톨릭에서 지칭된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대축일이다. 원래는 5월 13일이었는데 교황 그레고리 3세가 11월로 옮겼다고 한다. 할로윈(Halloween)은 11

월 1일 전야제(All Hallow's Eve)의 줄임말인데 ‘Hallow’가 앵글로색슨어로 성인(Saint)을 뜻한다. 할로윈은 위령제이면서 모든 성인과 순교자들을 기리는 가톨릭의 중요한 축제일 중 하나이다.

할로윈을 상징하는 물건이나 행위에 대한 유래도 있다. 호박등불 잭오랜턴은 술을 잘 마시는 잭이라는 사람이 마귀를 골탕 먹여 죽였는데, 그 마귀가 양심을 품어 잭을 천국에도 지옥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추운 아일랜드 날씨 속에서 방황하게 했다고 한다. 추위에 지친 잭이 마귀에게 사정해 솥을 얻었고,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호박 속을 파고 그 속에 솥을 피워 등을 만들었다. 이것이 할로윈을 상징하는 잭오랜턴이 되었다.

‘트릭 오어 트릿’은 마녀나 유령으로 분장한 아이들이 바구니를 들고 삼삼오오 모여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문 앞에 잭오랜턴을 밝히는 집이 있으면 그 집 앞에 가서 “트릭 오어 트릭(Trick or Treat!)”이라고 외친다. 사탕을 주지 않으면 장난칠 것이라는 귀여운 협박이다. 그러면 어른들이 바구니에 사탕이나 과자, 초콜릿 등을 넣어준다.

할로윈과 이벤트와 마케팅의 결합

미국은 10월 31일 할로윈데이를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이어지는 망자의 날(Dia de los Muerto),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11월 넷째 주 목요일),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11월 넷째 주 금요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까지 축제를 즐긴다. 할로윈이 축제의 시작점인 셈이다. 9월부터 상점가에서는 해골, 기괴한 가면, 잭오랜턴 등을 판매하는데 그 매출이 엄청나다. 매년 13억 파운드(약 5억 9천kg)의 호박이 생산되는데 이중에서 상당수가 할로윈 잭오랜턴으로 사용되고 있다. 할로윈이 지나고 버려지는 잭오랜턴 쓰레기 배출량이 매년 2억5400만 톤에 달할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붐(Boom)과 함께 할로윈이 퍼지기 시작했다.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에 원어민 강사들이 많아졌고, 이들 기관에서 작게 할로윈 파티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한때 무분별한 서양 행사를 따라한다는 언론의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은 할로윈축제가 연중행사가 되었다. 영어학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에서는 매년 할로윈 파티를 열고 있고, 대형쇼핑몰이나 빵집, 카페, 놀이공원 등에서는 할로윈을 활용한 이벤트와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할로윈 관련 제품이 2010년에는 3종이었는데 올해는 30종으로 9년 새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판매 기간도 2010년에는 6일 정도였는데 올해는 28일이나 됐다.

할로윈,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

지난 2016년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제목은 ‘할로윈데이에 어느 유치원의 부작용 사진’이다. 가오나시(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하얀 가면과 검은 망토를 두른 귀신) 분장을 한 친구를 보고 놀라 대성통곡하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찍혔다. 댓글에 적힌 “안타깝네요. 남의 나라 축제가 뭔지...”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우리는 할로윈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 남의 나라 축제에 괜히 열광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양한 놀이문화 중 하나로 보고 즐겨야 할까? 답부터 제시하면 적어도 크리스천들이라면 할로윈을 단순한 놀이문화나 이벤트 정도로 인식하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죽은 자를 예찬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할로윈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 거룩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절기로 바꾸어 누리는 것이 아닐까?

할로윈, 생명과 자유, 기쁨 누리는 절기로 바꾸자!



노치형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인생의 가장 큰 시간 단위는 1년이다. 한 해는 지나가고 또 지나간다. 반복해서 지나가는 시간들이 때로 지루할 수도, 흥미진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해가 흘러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계절이나 절기라는 것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흐름이 단조롭지 않고 풍성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기를 준비해주셨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까.

지난 주간 우리는 10월 31일을 지나왔다. 10월의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개혁기념일’로 기억된다. 하지만 이것은 기념일이 절기는 아니다. 교회력으로는 성령강림절 이후 절기를 보내다가 12월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이 시작된다.

‘추분’에 해당하는 지금 시기는 교회력으로 어떤 절기를 보내야 하는 걸까?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던 중세시대 교황으로부터 선포된 절기가 있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절기(All hallowtide)’이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 동안이다. 첫째 날(10월 31일)은 모든 성인들의 날을 기념하는 전날 밤이라는 뜻으로 ‘All Hallow’s Eve(=Hallowe’en)’, 둘째 날(11월 1일)은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인 ‘All Saints’ Day’, 셋째 날(11월 2일)은 모든 죽은 영령들을 기념하는 날인 ‘All Souls’ Day’로 지켰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째 날인 ‘할로윈’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지면서 현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문화, 사회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따르기가 어렵게 되었다.

할로윈(Hallowe’en)이라는 말은 원래 ‘거룩함’이 중시된 기독교 절기 용어로 사용됐다. ‘Hallow’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Hallowed’로 많이 사용되며, ‘Holy(거룩한)’라는 의미의 고전적 영어표현이다. ‘-en’은 ‘Evening’이라는 말을 나타낸다. 크리스마스이브처럼 ‘전날 밤’이라는 의미다. 즉, 할로윈은 ‘Hallows’ Eve or Hallow’s Evening’의 줄임말로 ‘거룩한 전날 밤’ 곧 ‘모든 성인들의 축제 전날 밤’을 의미했다. 중세 시대(로마 가톨릭)에는 교회력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지켰던 절기였지만, 시대가 흘러가면서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 그 이해가 종교다원적인 용어로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다.

할로윈에 대한 세 가지 왜곡된 해석

할로윈에 대한 세 가지 왜곡된 해석이 있다. 첫째, 혼합된 영적이고 종교적인 해석이다. 유튜브에서 ‘할로윈 노래’를 검색하면 ‘할로윈 동요모음’이라는 영상이 나온다. 그 노래 몇 곡의 가사들이 다음과 같다. “불을 뿜는 케르베로스, 작은 친구 호문쿨루스, 강철 먹는 불가살이, 훌훌 할머니 마고할망, 할로윈 축제 주인공은 바로 나 천년 뱀파이어 요아힘, 할로윈이야 할로윈이야 오싹오싹 할로윈 축제...”, “박쥐와 검은 고양이, 보름달, 쿵쿵 발자국 소리, 그림자가 살아난다.”

이 노래 가사들에 나오는 할로윈의 주인공들은 기독교의 상징들이 아니다. 유령과 마녀, 호박으로 만들어진 잭오랜턴, 거미줄, 흡혈귀, 미이라, 프랑켄슈타인 등 수많은 만화나 영화의 캐릭터들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할로윈은 10월 31일 일몰부터 시작된다.

“죽음에 대한 묵상으로써의 할로윈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 거룩한 기쁨 누리는 절기로 바꾸어 누리는 것이 어떨까?”

다신교와 애니미즘을 숭배했던 켈트족(Celts)은 새해 첫날의 전날인 10월 31일에 삼하인(Samhain)을 지켰다. 로마 가톨릭과는 무관한 전통이었지만 기독교 절기와 혼합되면서 그들만의 새로운 절기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켈트족에 따르면 10월 31일 저녁이 되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가장 얇아져 선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점프해서 이동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 그날 밤 조상신 같은 선한 영들은 집안으로 들어와도 관찰지만, 악령들이 집안이나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와 거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기괴한 가면과 귀신 복장으로 분장하고, 집을 무덤처럼 차갑게 하고서 그 밤을 보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 교회 절기와 켈트족의 절기가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서로 다른 영적 해석들을 섞어 하나로 이해하면서 생겨난 혼합된 종교와 문화의 열매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할로윈에 대한 이와 같은 혼합된 해석은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이야기들과 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와서는 자본주의 중심의 문화적 해석과 연결돼 온 세상을 향해 점점 더 빠르게 퍼져나가기에 되었다.

둘째, 자본주의 중심의 문화적 해석이다. 미국 및 서양 문화에는 할로윈이 왜곡된 의미의 절기로 이미 오래 전부터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반면, 대한민국 문화 속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다 21세기를 맞으면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현재는 너무 깊이까지 들어와 영향을 주고 있다. 몇 해 전부터 10월 중순이 지나고 나면 대형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상점들에서 할로윈을 기념하는 장식이나 상품이 진열되고 판매되고 있다. 많은 유치원에서 할로윈 코스튬 행사와 잭오랜턴 만들기 실습 등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학습 시간에 서양문화를 배운다는 취지로 ‘Trick or treat!’(맛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장난칠거야)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있다. 놀이동산에서는 할로윈 퍼레이드와 공포체험 이벤트를 운영하고 홍보하고 있다. 대형엔터테인먼트기획사에서 주최하는 연예인 할로윈 파티와 유명 연예인들의 할로윈 코스프레 등을 통해 더 많

할로윈, ‘하나님의 거룩하심’ 중심에 둔 절기로 지켜져야

할로윈에 대한 온갖 해석들이 올바른 것처럼 우리 생활 속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할로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할로윈은 그 의미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중심에 둔 절기로 지켜져야 한다. 어떤 교회들은 ‘할렐루야 나이트’로 바꾸어 할로윈을 보낸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룩한 책 성경은 인생의 가장 큰 단위원 1년을 하나님의 절기 속에서 지내기를 제시하며 인도하고 있다. 유월절로 시작되어 무교절을 보내고, 곧바로 초실절을 통해 추수가 시작되고, 칠칠절을 지난 오순절까지, 그리고 모든 추수를 마치고 모든 결실을 창고에 들이는 수장절을 지나 정결함을 회복하는 나팔절 이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초막절로 마치게 된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인생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과 연결되어 개신교의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룩하게 기다리는 대림절기로 시작해 성탄절을 지나고, 주현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묵상하고,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깊이 묵상하게 한다. 사순절의 절정은 종려주일로 시작해 세속 목요일과 성금요일을 포함하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로 마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이 지난 뒤에 오순절 성령강림절을 지키게 되고, 이후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교회력의 한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성령강림에 대한 묵상이 지속된다. 그리고 다시 대림절기로 이어진다.

할로윈은 성령강림을 가장 깊이 누리는 절기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죽은 자를 예찬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묵상’으로써의 할로윈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한 생명력을 통해 모든 사람을 자유함으로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 거룩한 기쁨 누리는 절기로 바꾸어 누리는 것이 어떨까?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창조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준비하는 거룩한 절기로써 할로윈을 이해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사랑, 그것은 대학 캠퍼스의 ‘희망’

2019 희망노트 명지대 2,377명, 연세대 897명 참석

복음의 불모지, 복음화율 4%, 전도의 희망이 없는 곳...

이 시대 대학 캠퍼스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만큼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와 복음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가치를 좇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성공이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고,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지 못한 이유도 있다.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상당하다. 요즘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전쟁이 정말 심각하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끊임없이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 실시하는 ‘희망노트’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최성민 목사가 희망노트에서 대학생들에게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1세기는 변화의 연속이다. 그 속도도 참 빠르다. 가치관, 세계관, 문화 등이 참 빨리도 변한다. 빠르고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 이 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학 캠퍼스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청년들이 교회와 예수에 마음을 담아버렸다고 생각하고 캠퍼스 전도를 포기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온누리교회 대학부는 대학 캠퍼스에서 예배와 전도의 불씨가 꺼져가는 암담한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시대 청년들

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다. 크리스천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청년들이 나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 캠퍼스에 뿌리내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시선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온누리교회 대학부는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연구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사라진 전도의 기회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 연구와 고민의 결과가 바로 대학생들을 위한 전도집회 희망노트다. 희망노트는 2014년부터 시작됐다. 대학 캠퍼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채플시간에 청년들과 만나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

을 마련했다. 명지대학교를 시작으로 연세대학교, 한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충남대학교, 호서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지에서 희망노트를 이어오고 있다. 1년에 두 차례 대학교 채플에서 집회를 하고, 캠퍼스 예배와 전도활동을 돕고 있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하고,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019 희망노트는 지난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막 올랐다. 명지대학교 학생 2,377명, 연세대학교 학생 897명이 참석했다.

올해 희망노트의 키워드도 역시 ‘사랑’이었다. 최성민 목사(대학부 총괄)는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다”면서 “그 사랑의 비밀이 담긴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소개했다.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수 몽니, 지미선, 김상진, 이미셀, 하니 등을 게스트로 초대했다. 메시지는 최성민 목사가 전했다. 최 목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창조된 인간은 사랑할 때 행복하고, 비로소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목사의 설교는 물론이고, 인트로 영상, 주제 영상, 게스트들의 찬양과 간증까지

모두 사랑을 이야기했다. 사람이 왜 사랑을 해야 하는지, 왜 사랑할 때 행복한지,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 등을 주제로 사랑을 노래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다.

희망노트에 참석한 대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박지현 학생(명지대학교)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유다운 학생(연세대학교)은 “인생의 의미가 사랑에 있다는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다”면서 “나도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다. 김동완 학생(연세대학교)은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명지대학교 교목 실장 구제홍 교수(명지대학교 교목)는 “희망노트가 대학생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관계를 배울 수 있는 장이 되어주고 있다”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희망노트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고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2019 희망노트에서는 명지대학교 학생 473명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했고, 576명이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연세대학교 학생 132명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했고, 306명이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온누리교회 대학부는 올해 12월 공군사관학교에서 희망노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역칼럼



최성민 목사
(대학부 총괄)

한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 캠퍼스가 영적 전쟁터가 되었다.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쫄쫄 숨는 일이 많아졌다. 전도의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졌다. 많은 대학의 채플과 선교단체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한국 대학 캠퍼스의 현실이다. 대학 캠퍼스에 복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할 때 비로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대학 캠퍼스의 학생들이 이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대학 캠퍼스 안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 희망노트에서는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작정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크리스천들이 보여주는 사랑을 보면서 비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신자 학생들에게는 “사랑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기를 소망한다.

캠퍼스 복음화율이 4%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캠퍼스의 복음화

율은 15%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11%가 숨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숨어있는 11%의 불씨를 찾아야 한다. 희망노트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대학 캠퍼스 안에 남아 있는 예배와 전도의 불씨를 찾아 지키고자 한다. 희망노트 사역만으로 대학 캠퍼스에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할 수는 없다. 희망노트는 남아 있는 복음의 불씨를 지키는 역할이다. 희망노트를 통해 대학생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 일에 대학 캠퍼스에 숨어 있는 크리스천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

희망노트를 통해 수많은 대학생들이 비전을 찾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 한동대

학교에서 진행했던 희망노트 집회가 끝나고 한 여학생이 울면서 찾아왔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드러내지 않고 있었는데, 희망노트에 참석하면서 잊고 있었던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고 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한 학생이 찾아왔다. 집회가 끝났는데도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학생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처럼 희망노트를 통해 잊고 있던 비전을 다시 발견하는 학생도 있었고, 잃어버린 인생의 의미와 희망을 발견하는 학생들도 있다. 희망노트를 통해 대학 캠퍼스에 복음의 불길이 다시 한 번 타오르기를 기대한다.

희망노트의 꿈

떠나는 목회자의 인사 1. 손정훈 목사

“여러분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손정훈 목사

손정훈 목사가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받아 온누리교회를 떠난다. 손정훈 목사는 1999년부터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 차세대, 대학청년부, 해외비전교회, 성인공동체, 이주민공동체, 회복사역본부, 2000선교본부 등을 두루 섬겼다. 손정훈 목사는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께 정말 큰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서 “그 큰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손정훈 목사와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목사님과 온누리교회의 만남이 궁금합니다.

“1990년도에 제가 재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종로에 있는 재수학원 옥상에서 여섯 명이 매일 아침 모여 QT 모임을 했는데 그때 어려운 가운데 받은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때 함께 QT모임을 하던 형님의 소개로 목요 경배와 찬양 집회에 참석하면서 온누리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난 뒤 온누리교회에서 더 배우고 싶어서 여호수아공동체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때가 1996년일 겁니다. 그리고 1999년에 온누리교회 교역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파트 전도사로 섬긴 부서는 차세대 고등부였는데 당시 차세대 본부장님이셨던 강부호 목사님께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던 모습에서 많은 도전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역과 공동체를 섬기셨습니까?

“차세대 고등부 파트사역자로 시작해서 청년부에서 전임사역자가 됐고, 서초A, 양재, OCC공동체 등을 섬겼으며, 탈북민공동체도 2~3년 동안 섬겼습니다. 2005년에는 홍콩중앙교회로 나가 3년 동안 사역하다 2008년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009년에는 하용조 목사의 배려로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해외비전교회를 섬긴 경험이 목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2년 국내로 돌아와서는 회복사역을 하며 한마음 공동체, DRS(이혼자 회복학교)를 섬겼고, 2017년부터는 2000선교본부에서 선교동원과 OGP본부를 섬겼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과 이재훈 목사님께 받은 은

혜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목회자로서의 삶과 방향에 큰 영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교역자 모임에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손정훈 목사, 설교가 좋아, 꼭 그렇게 해”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교역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일일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 보신다는 게 정말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또 한번은 목회자로서 배움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투석 중인 병원에 찾아가 상의 드렸는데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니, 목회와 신학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선교본부로 자리를 옮겨서 온누리교회와 국제선교단체들을 연결하고, 성도님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온누리교회를 찾아온 짐 와일더, 에드코리, 조나단 봉크, 피터 스카지르, 데이비드 플랫, 모건 잭슨, R.T 캔달, 라비 재커라이어스, 짐 심발라 등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해외 강사들의 통역을 돕고,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받은 은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온누리교회 선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자주 돌아

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만큼이나 활발히 선교를 하고, 사역도 16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전임 목사님이셨던 정인수 목사님은 하용조 목사님과도 깊은 교제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정인수 목사님은 건강이 안 좋으신 데도 개의치 않으시고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셨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그 날은 당신의 61세 생일날이었습니다. 그 뒤로 3년 반 동안 담임 목회자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어려움 가운데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평소 아껴 주시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의 추천으로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청빙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공동의회에서 97.8% 찬성표를 받아 담임목사로 청빙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와 비전을 말씀해주시요.

“기본에 집중하겠습니다. 일대일제자양육, QT, 예배에 먼저 집중할 것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기본에 충실한 목회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니어와 다음세대를 섬기고, 그들 세대를 연결하는 브릿지가 되고자 합니다. 애틀랜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10만 명 정도인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미 전역에서 시니어분들이 많이 이주해 오십니다. 그래서 시니어학교 참석자만도 800명이 넘는 정도로 많습니. 또한 이민자 2세대들을 다음세대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역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수많은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사역하면서도 큰 분란이 없고, 권위적이지 않으며, 수평적인 교회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형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하 목사님께서 꿈꾸셨고, 이재훈 목사님이 바톤을 이어 받은 ‘바로 그 교회’의 좋은 모델로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면 떠나게 되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한 분 한 분 기억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셨는지 다시 전화를 주셔서 긴 시간 상담해 주셨습니다. 하 목사님은 저를 한 명의 교역자라기보다 목양의 대상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도 사임하고 선교지로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4년과 1996년 선교한국에 참여하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는데 20년이 넘도록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음속에 빔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무작정 이재훈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는 사임하고 선교지로 나갈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재훈 목사님께서 ‘마음은 잘 받았다’고 하시면서 국내에 찾아오는 이주민들에 대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셨고, 또 새로운 비전을 펼쳐 보여 주셨습니다. 그때 ‘마음은 잘 받았다’고 해주신 그 말씀이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부채 의식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000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강단과 일상에서의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온누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일터나 교회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본이 되어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늘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더러는 일반 목회자들보다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회복사역과 선교본부 장로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도전 받기도 했습니다. 연약하지만 가난한 마음의 한 마음 정신회복 공동체와 DRS(이혼자회복사역)의 예배에서 누렸던 은혜, 그리고 마지막 5년간 마포공동체 성도님들과 새벽송을 돌고, 노숙자 사역을 하며, 국내외 아웃리치를 다니는 동안 함께 만든 믿음의 추억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꿈을 꾸는 분들과 함께 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를 소개해주시요.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는 이제 창립한 지 42년 되었고, 지역 사회에서 만형과 같은 역할

2019 TGC코리아 컨퍼런스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을 믿고 읽고 선포하라”

한국 교회 지도자, 유학생, 성도 등 1,500여 명 참석



2019 TGC코리아 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성경을 믿고 읽고 선포하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자!”

2019 TGC코리아 컨퍼런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하 TGC 컨퍼런스)의 핵심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다. TGC 컨퍼런스는 지난 10월 30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올랐다. 한국 교회 지도자, 유학생, 성도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필립 라이큰 교수(제10장로교회 담임, 휘튼대학교 총장), 스티븐 엄 교수(보스턴시티라이프장로교회 담임, TGC 부대표), 브라이언 채플 교수(그레이스장로교회 담임, 커버넌트신학대학원 명예총장), 돈 카슨 교수(미국 트리니티신학대학원 명예교수, TGC대표) 등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에 대해 강의했다.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

필립 라이큰 목사는 ‘성경은 영원하다’, ‘성경은 명확하다’,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면서 “성령에 의해 기록되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보

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시도들이 있지만 성경은 반드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이라고 선포했다. 필립 라이큰 목사는 성경의 명확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배우든 그렇지 않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는 만큼 명확하다”고 못 박았다. 필립 라이큰 목사는 사회 분위기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이 되어가는 현상을 경고하면서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했다.

성경의 참된 맛을 즐겨라!

스티븐 엄 목사는 ‘진리의 말씀’, ‘성경의 총 족성’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방황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목회자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찾거나 개인적인 경험에 의지하거나 인정받기 위한 설교를 하려는 것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

목회자 본인과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 받을 가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티브 엄 목사는 “성경의 참된 맛을 즐겨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성경에 담긴 정보만 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성경 읽기의 핵심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직 성경, 성경을 외쳐라!

브라이언 채플 교수는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을 외쳐라’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고, 완전하다는 사실에서 벗어나면 인간이 구원자가 되고, 목회자들의 설교는 우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의 권위와 완벽함이 인간에게 구원과 자유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그는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브라이언 채플 교수는 “때가 없어도, 아무도 듣지 않아도,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행하라!

돈 카슨 목사는 ‘말씀 계시의 중요성’,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 설교하기’,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말씀’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성경을 읽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말씀은 곧 하나님이며,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표현”이라고 했다. 돈 카슨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빠진 크리스천들을 위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그는 “버림받고 짓이김 당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GC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반응이 무척 뜨거웠다. 전은숙 목사(분당갈보리교회)는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금 떠올렸다”고 했고, 박연순 전도사(강서침례교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 받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윤석 집사(전주예은교회)는 “성경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성경이 나의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홍하영 기자



필립 라이큰 목사



스티븐 엄 목사



브라이언 채플 목사



돈 카슨 목사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무대에 오른다고 하신다. 온누리교회 최고령 성가대 ‘포에버성가대’의 눈물겨운 고백이다. 그 열정, 그 행복, 그 감동 덕분에인지 포에버성가대가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난다. 천상의 소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 화음도 으뜸이다. 어르신들이 만들어 내는 잔잔한 화음은 전문합창단이라 불려도 손색이 전혀 없다. 바로 그 포에버성가대가 오는 11월 9일(토)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제8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11월 9일 포에버성가대 제 8회 정기연주회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다.”
이 아름다운 고백의 주인공은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다. 역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은 머리가 하얗게 새도, 다리가 불편해도, 눈이 침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포에버성가대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행복한 표정이다. 포에버성가대원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지고, 예수 믿는 재미가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웃음꽃 활짝 핀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는 사람마다 덩달아 행복지는 선물을 받는 다.

포에버성가대의 실력도 상상 이상이다.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가 각자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해내고 있고, 하모니 또한 일품이다. 모두 함께 만들어내는 화음을 듣고 있으면 마치 천사들이 내려와 찬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다. 어디 그뿐인가. 리듬이 빠른 찬양을 할 때에는 힘차게 손뼉을 치고, 양 옆으로 몸과 고개를 흔들면서 안무까지 선보인다. 꼭 기뻐 뛰며 찬양하는 다윗 같다.

그 이름 ‘포에버성가대’

박영태 장로는 포에버성가대 창단멤버다. 포에버성가대 역사를 박 장로보다 잘 아는 이가 별로 없다.

“처음에는 말도 마세요.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때는 성가대가 아니라 그냥 노래교실 같았어요(웃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노래 부르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즐거웠던지 매주 모였어요. 다들 찬양하면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

포에버성가대의 첫 번째 이름은 ‘실버성가대’였다. 1997년 3월 하용조 목사의 적극적인 배려와 권유로 창단했다. 교회와 사회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주고자 시작한 사역이었다. 실버성가대가 창단되자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어르신들이 한 명 두 명 모여들었다. 그곳에 모인 어르신들은 온누리교회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온누리교회 창립 때부터 수많은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면서 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이었다.

하나님께 삶을 헌신한 이들은 포기도 모르

고, 적당히 신앙생활 할 줄을 몰랐다. 오죽하면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포에버성가대에 왔을까. 포에버성가대가 귀하고, 복되고,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모범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박 장로의 말대로 포에버성가대의 시작은 조촐하고 불품없었다.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교실 같았다. 성가대라기보다는 여가나 취미생활 정도로 여겨도 무리가 없어보였다. 그래도 문제될 건 없었다. 어르신들이 교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포에버성가대원들에게는 찬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그 어떤 세대보다 뜨겁고 힘찼다. 그 열정이 타오르도록 기쁨을 부른 이가 바로 홍용식 성가사다. 2012년 전문 지휘자 홍용식 성가사가 실버성가대에 입단했다. 그때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이 시작됐다. 음색에 맞춰 파트를 나눠 연습하고, 찬양에 간단한 안무를 곁들였더니 꽤 근사하고 풍성한 찬양이 만들어졌다. ‘실버성가대’ 혹은 ‘시니어성가대’라고 불리던 딱딱한 이름도 벗어던졌다. ‘영원히’라는 뜻을 가진 영어 ‘Forever’와 성가대를 결합시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의 근사한 이름을 만들었다. 바로 그 이름 ‘포에버성가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포에버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싶은 성가대원들의 마음을 담은 이름이다. 홍용식 성가사는 입단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다른 건 몰라도 성가대원들의 의지가 남달랐어요. 노인들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가 많았어요. 포에버성가대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다 날 정도였어요. 포에버성가대는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성가대입니다.”

“나는 찬양 때문에 살았다”

부총무로 섬기고 있는 강창우 집사는 포에버성가대에서 유명인사다. 포에버성가대에서 찬양하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강 집사는 알아주는 솔고래였다. 시간만



포에버성가대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

나면 일근하게 취하는 게 강 집사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런 그가 우연한 기회에 포에버성가대에 입단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했다. 술에 취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고, 공연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깨달으면서 삶이 달라졌다. 지금 강 집사의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 포에버성가대 활동을 얼마나 즐겁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박영태 장로는 강 집사의 변화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포에버성가대에 오면 누구든지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된다고 고백했다.

“우리 부총무님이 전에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죽을 위기까지 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포에버성가대에 입단하면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수 술하고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을 때도 포에버성가대 연습에 꼬박꼬박 나오더라고요. 부총무님이 ‘찬양 때문에 살았다’고 간증도 했습니다. 포에버성가대는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들 죽을 힘을 다해 연습하러 오시는 겁니다.”

박 장로의 말이 전혀 과하지 않다. 실제로 포에버성가대원들은 “찬양하다가 죽으면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 다리가 불편하면 지팡이를 짚고, 유모차를 끌고서라도 포에버성가대 연습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몸이 너무 아파서 연습에 못 나오는 대원들은 중보기도로라도 꼭 한다. 홍용식 성가사는 포에버성가대원들의 열정을 이렇게 소개했다.

“내년에 피는 코스모스를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데도 포에버성가대는 정기연주회를 매년 해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찬양하는 매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포에버성가대의 찬양이 큰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이유가 이 때문 아닐까? 얼마 전에는 포에버성가대 제주도 아웃리치에서 칠십년 만에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어르신도 있었다. 포에버성가대 모 관사가 매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어르신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다.

포에버성가대는 찬양사역자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 포에버성가대는 정기연주회와 아웃리치 외에도 가정의 달 예배 특순, 춘천소년원 예배 찬양, 행복드림 콘서트 특순 등을 한다. 11월 9일 오후 5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 가면 포에버성가대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축사 및 축도한다. 포에버성가대 대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 포에버성가대 팀장 김영태 장로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정기연주회에 초대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포에버성가대 정기연주회에 초대합니다. 오셔서 모두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포에버성가대 대원모집
자격: 60세 이상 남녀
연습시간: 수요일 오전 10시, 주일 오후 2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01호
오디션: 찬송가 자유곡 1곡
문의: 팀장 010-8968-7641
부총무 010-2548-8284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지난 10월 27일 '러빙유 전도집회'를 열었다.

“관심과 사랑 덕분에입니다”

안산 온누리M센터 베트남어예배 창립 5주년

안산 온누리M센터 베트남어예배(이하 베트남어예배)가 창립 5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감사예배를 지난 주일(27일) 안산 온누리M센터에서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에는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 담당), An 목사(베트남어예배), 강남B 공동체, 아베스맘사역팀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An 목사는 “2014년 이주민을 위한

하베스트집회에서 시작된 베트남어예배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창립 5주년을 맞이했다”면서 감사인사를 했다.

안산 온누리M센터 베트남어예배에서는 베트남에서 온 이주민들과 그 가족들을 섬기고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안산 온누리M센터 Peace 301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 김영선 기자

한 영혼 사랑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대전, 뜨거운 전도 열정으로 풍성한 열매 맺어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전도 안 하는 것이 실패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뜨거운 전도 열정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포문은 지난달 10월 27일(주일) 막 오른 ‘러빙유 전도집회’가 열렸다.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며 준비한 러빙유 전도집회에는 전도대상자 134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CCM 가수 한웅재 목사가 들려주는 감미로운 찬

양과 감동적인 간증이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47명이 결신하고, 54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지난 10월 30일(수)에는 수요여성사역 전도집회가 열렸다. 하정완 목사(꿈이있는교회 담임)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남성4중창단 벨라보체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었다. 전도대상자 25명이 참석해서 14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김상수 목사(대전 온누리교회 담임)는 “전도대상자들을 마음껏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어느 성도님의 고백을 듣고 정말 감사했다”면서 “앞으로도 대전 온누리교회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영등포구로공동체 가을운동회

여성민 목사, 장광 장로 등 135명 참석

지난달 26일(토) 영등포구로공동체가 안양천 영릉이역세 제2구장에서 가을운동회를 개최했다. 연합순예배와 더불어 열린 영등포구로공동체 가을운동회에는 여성민 목사, 장광 장로, 영등포구로공동체 지체 135명이 참석했다.

영등포구로공동체 가을운동회는

연합순예배를 시작으로 4인4각, 볼풀농구, 풍선기둥 쌓기,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진 집사(영등포구로공동체)는 “운동회가 끝나고 귀가하는 지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일대일 양육자 Wake-Up 참가자 모집

평일반 11월 7일, 주일반 11월 10일 개강

양재 일대일사역팀에서 ‘일대일 양육자 Wake-Up’ 참가자를 모집한다. 평일반은 11월 7일~11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양재 온누리교회 비전홀A, 주일반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8시 양재 302호에서 진행된다. 일대일 양육자 Wake-Up 과정은

일대일 양육자들을 위한 보충심화 과정이다. 오랫동안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지 않았거나 일대일 양육자 반을 수료했으나 아직 동반자를 만나지 못한 양육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문의: 02-570-7349

성경적 자녀양육 세미나 개최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신용산교회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성경적 자녀양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같이 있는 부모, 가치 있는 아이’ 세미나가 11월 30일(토) 오전 10시 30분 신용산교회(용산구 한강대로14길 69)에서 열린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유한익 전문의(서울뇌과학연구소장)가 성경의 원

리와 양육의 지식을 접목한 균형 잡힌 자녀 양육관에 대해 강의한다. 기독교적인 바른 자녀 양육방법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회비는 5만 원. 11월 25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 준다.

문의: 02-2078-3456

“스마트폰 기증해주세요”

2000선교본부에서 안 쓰는 스마트폰을 기증받고 있다. 성도들이 기증해 준 스마트폰은 임시 귀국 선교사들이 사용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216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11기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본부 11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12만 원. 접수: 02-2182-9114

“사역을 다시 성도들에게”

2019 온누리선교 컨설팅 개최

2019 온누리선교 컨설팅이 ‘사역을 다시 성도들에게’를 주제로 오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 캔싱턴리조트에서 열린다.

2019 온누리선교 컨설팅에서는 일반사역, BEE, 아버지학교 등의 사례를 살펴 보면서 성도들의 역할과 기여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온누리 선교 비전을 세워 나갈 예정이다.

일반사역은 1만 명의 평신도 사역을 세우겠다는 비전이다. 2천/1만 비전 중 하나이다. 2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비전은 지난해 누

적 2,000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루었고, 이제는 현장 선교사 2,000명을 파송하겠다는 비전으로 성장했지만, 일반사역 비전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2019 온누리선교 컨설팅에서는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일반사역 비전확대 전략 등에 대해 성경적, 신학적, 선교학적 고찰을 통한 발표 및 토론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13일에는 제주드림교회에서 ‘제주Acts29훈련센터’ 완공감사예배를 드린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7812	김은정	강동 믿음	1137832	강민지	동대문중앙	1137853	서창현	여호수아	1137888	조영은	북누리
1137813	박찬형	서초C	1137833	이인수	수원 남누리	1137854	이동현	여호수아	1137890	박성식	부천 소망
1137814	황성재	인천 서누리	1137834	박순희	수원 남누리	1137855	김영준	이수	1137891	조이라	부천 화평
1137815	김미진	강남B	1137835	오상태	인천 동누리	1137856	최홍성	Bridge33+	1137894	김성일	인천 동누리
1137816	구은옥	대전 남누리	1137836	이영희	서초A	1137858	이나라	이수	1137914	정태진	하늘
1137817	장낙용	강남A	1137837	박하은	대전 동누리	1137859	박정호	여호수아	1137916	김진기	하늘
1137819	양현주	서빙고	1137838	김성환	강남B	1137860	이유진	하브	1137918	윤승오	하늘
1137820	김기엽	Bridge33+	1137839	김은지	하늘	1137861	방은혁	하브	1137919	김도현	하늘
1137821	서윤아	SNS	1137840	명주형	Gil	1137862	류명현	하브	1137920	김효중	Point5
1137822	하예준	SNS	1137843	이영은	Gil	1137863	윤소원	하브	1137922	김관영	강촌
1137823	구시원	SNS	1137844	김진균	영등포구로	1137864	봉성일	하브	1137923	이수연	인천 동누리
1137824	양현지	SNS	1137845	김수연	여호수아	1137865	정혜리	하브	1137924	노승원	양지 동누리
1137825	류예찬	SNS	1137846	윤하경	여호수아	1137866	김동욱	하브	1137925	조미영	특별한초대
1137826	성주희	SNS	1137847	조현지	여호수아	1137867	김선민	하브	1137926	안지현	이촌
1137827	정다와	SNS	1137848	한지혜	여호수아	1137868	박혜림	하브	1137928	조현정	양재
1137828	양진우	SNS	1137849	조호진	여호수아	1137869	조병영	이수	1137929	김재희	양재
1137829	권태형	SNS	1137850	이효진	여호수아	1137885	이지훈	수원 동누리	1137930	김재수	인천 동누리
1137830	김혜미	SNS	1137851	김동희	여호수아	1137886	이경하	관악금천	1137931	최유미	인천 동누리
1137831	권혁건	인천 서누리	1137852	김보근	여호수아	1137887	이상림	영등포구로			



구마모토 기·도·제·목

- 11월 3일(주일) 러브소나타에 참석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 11월 4일(월) 교회세미나, 리더십포럼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도록
- 11월 5일(화) 모든 출연진, 봉사자, 스테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길
- 11월 6일(수) 언어와 문화를 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 11월 7일(목) 이재훈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영혼들의 마음이 녹도록
- 11월 8일(금) 러브소나타를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 11월 9일(토) 구마모토 모든 교회들이 새 힘을 얻고 복음 전파에 힘쓰기를

유아세례 간증



/ 유아 김예인, 부 김우석 성도, 모 유보연 성도

마흔,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니문베이비 ‘축복이’를 주셨다. 그런데 감사와 기쁨도 잠깐, 임신 7주 만에 축복이를 하늘나라로 돌려보내야 했다. 몇 개월 지나 다시 아이를 갖고자 했는데 난임 진단을 받았다. 4~5차례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는 동안 주일예배 유아세례식이나 신생아 축복기도를 볼 때마다 허염없이 눈물이 났다. 20대 초반부터 결혼하면 첫 아이를 낳고 아이 셋을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험관 시술을 더 할지, 입양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남편과 둘이서만 즐겁게 살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기도하던 중에 문득 스가랴 말씀이 떠올랐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슥 4:6-9).

다 알 수는 없지만 힘도 능도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았으니 그 일을 마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 이후 우리 부부는 차근차근 입양을 준비하며 아이를 기다렸다. 길고 긴 준비 기간을 거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드디어 아이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다. 한 아이를 보자마자 뭔가 마음이 찢어지며 “이 아이가 네 아이다”라는 음성이라도 들려주시지 않을까 기대감과 설렘을 가졌지만 실상은 무덤덤하기만 했다. 다만 여러 아이들 중에서 주변을 맴돌며 먼발치서 우리를 바라보던 한 아기에게 눈길이 멈췄다. 어딘가 모르게 남편 어릴 때 사진에서 봤던 모습이 겹쳐보였던 ‘예인’이었다. 그러나 쉽사리 정하지 못했다. 결정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입양가족 선배에게 “아이를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임신도 어떤 아이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깨달았다.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결정하려고 했음을 알게 됐다.

예인이가 우리에게 온 지 6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예인이는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 예인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날마다 깨닫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있다.

온누리햇불남성합창단 아웃리치 간증



/ 박강주 성도(온누리햇불남성합창단)

여기까지가 아니었다

‘온누리햇불남성합창단’이 지난 10월 19~20일 경남 통영시 한산면 창자리 서좌교회로 세 번째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주민은 30명 내외, 교인은 목사님 부부와 80대 부부, 할머니 두 분 뿐이다. 2017년 처음 방문한 서좌교회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었다. 당시 느릿느릿 바퀴를 밀고 오시는 주민들의 모습에는 삶의 고달픔이 묻어있었다. 하리가 굵어 얼굴이 땅을 보고 있었다. 그 할머니들께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웃으면서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셨다. 이 섬마을에 남성합창단이 온 것은 마을과 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18년 두 번째 방문했을 때였다. 교회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았던 분들이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 계단을 오르고 계셨다. 감동이었다. 첫째 보았던 분과 처음 뵈는 분을 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셨을까’라며 궁금증이 생겼다. 목사님의 지나가는 말속에서 답을 찾았다. 자녀들이 도시로 나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거나 사위나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 덕분이라는 것이다. 복음에 완고했고, 교회를 외면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로 인해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

나 거기까지였다.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수확물을 안고 목사님께 인사는 와도 주일예배에는 오지 않았다.

올해가 세 번째 아웃리치였다. 그 마을에는 증산도를 믿으며 복음을 거부하는 가정이 있었다. 예수님을 알았던 두 여인이 그 집안으로 시집을 왔지만 40년, 60년이 지나도록 교회에 출석을 못했다. 그 집안 삼형제와 아내들이 서좌교회에 왔다. 우리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은혜를 노래했다.

“이곳에 오신 어머니들은 긴 세월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교회로 보내 주십시오. 죽은 후에 조상들이 계신 곳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뿐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러니 보혈이라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세례 받으세요.”

모든 순서를 마치고 천국에서 뵈자며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올해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었다. 예배 중간 무렵 세 명의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우리 모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박희주 선교사(남아시아 B국)

안녕하세요? 지난 9월 남아시아 B국에 들어와 지금까지 지내는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크게 세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지난 7월 리서치를 왔을 때 미리 집을 정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제가 얻은 집은 매우 저렴해서 시내의 약 1/3 가격입니다. 제가 다닐 대학교와 가깝고, 비교적 깨끗하며, 가구가 있어 이사하기 용이합니다. 또 렌트할 집을 찾느라 35도를 웃도는 길을 다니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게다가 집이 생겨 집을 바로 부치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안정되게 공부를 시작해서 매우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사소한 일 같지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7월 리서치 때 알게 된 분의 도움으로 대학입학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국립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아시아 B국은 아직 교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세 가지 은혜

종합대학이 많지 않은데 저는 B시의 유일한 국립대학교에서 현지 학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는 언어를 배우고, 앞으로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현지어를 잘 익히고 좋은 현지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입학하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까지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이곳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오후 4시 30분이면 버스가 끊깁니다. 아직 어디에서 무엇을 파는지 잘 모르고, 큰 물건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운반이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김치를 담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부어지고 있다고 고백할 뿐입니다. 바로 이 은혜는 여러분이 모으는 두 손과 무릎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재소자 일대일 제자양육 간증



/ 장믿음 재소자(영월교도소)

2017년 6월 29일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는 날이었다. 오랜 시간 재판을 끌어들면서 한가닥 희망과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낼 수도 있다는 불안과 걱정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래도 구속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결과는 1년 6개월 징역을 판결 받았다. 재판이 시작된 지 햇수로 6년, 고등법원에서 판결 받은 지 꼭 1년 만이었다. 그동안 시달려왔던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곧바로 구속 수감됐고 교도소에 도착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 문밖으로는 한 걸음조차 나갈 수 없는 차단된 세계였다. 막막한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의무교육을 받고 종교조사를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종교가 없었다. 어릴 적 미션스쿨을 다녀서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가를 가르쳐주던 기억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아무 생각 없이 기독교라고 말했고, 다른

흐르는 물처럼

크리스천 재소자들과 간단한 소모임을 갖게 됐다. 일반적인 대화와 인사를 하는 그런 자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속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북받쳐 올라왔다. 눈물이었다. 혹여나 남들이 볼까봐 겨우겨우 참으면서 방에 돌아왔다. 첫 주일예배를 드리던 날 울려 퍼지는 찬송가를 들으며 결국 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었다. 약해진 마음을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불러가며 다독였다. 크리스천 재소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흐르는 물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교도소 기독교 반장님이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추천해주셨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기독교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나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 양육자님의 말씀들이 마음속에 콕콕 박혔다.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 올리듯 말씀의 집을 짓도록 도와주셨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른다. 앞으로 믿음생활 하는데 초석이 되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장로칼럼

동빙고 근린공원 착공식에서



임희창 장로
(차세대 대표장로)

온누리교회가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공간을 만든다. 차세대 8천여 명과 2천7백명의 선생님들이 8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역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다.

동빙고 근린공원에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체육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인 FCA 스포츠 선교팀과 이영표 축구교실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것을 기대하며 착공식에서 드렸던 기도문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자 한다.

“지금까지 34년 동안 온누리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1년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공원 부지를 매입하게 해주셨고,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 어린이집과 공원화 사업에 새 생명의 꿈을 담아 첫 삽을 뜨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격스러운 착공예배의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과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하신 실무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부터 청소년들이 다문화 학생들과 어울려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터전을 통해 열방을 품고 선교의 사명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이집을 통해서도 믿음의 자녀들이 양육되며,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밤늦도록 학원을 다니며 지쳐있는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확인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잠시 떠났거나 믿지 않는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울러 잘 꾸며진 공원에서 모든 성도들과 가정 구성원이 함께 어울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그랄 목자와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실 것을 믿고 평안의 르호봇 우물을 판 것처럼 여호와 아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축복의 터전 되게 하옵소서. 특히 지역 사회와 주민들과는 서로를 섬기며 협력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와 공존의 지리가 되어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케 되는 샘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할 사회선교로까지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며 성도들에게는 더 큰 기쁨을 위해 감당해야 할 불편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확인하며 매일 매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성령의 기쁨 부으심을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대! 아멘.”

권사칼럼

바꿀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



김수진 권사
(포에버성가대)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
할수록 깊어가는 가슴에 눈물은
항기로운 꿈이었나~♪”

“난 오늘같이 아름다운 달이

뜨면 언제나 우리 처음 만난 날
그대가 눈부시던 그 시월의 마지막 밤이 생각나~♪”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과 이용의 ‘시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다. 나는 이 노래를 참 즐겨 불렀다. 친구들에게도 가르쳐주곤 했을 정도다. 이 노래를 묵상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 나를 되돌아보니, 지금 나를 만들어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해본다.

“이제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잠 31:30).

주님은 내가 새 노래를 부르도록, 회개와 자복의 영이 임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셨다. 그곳은 바로 찬양하는 공동체 ‘포에버성가대’다. 찬양으로 부르는 말씀이 나의 지난 세월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이다. 포에버성가대를 통해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고백한다. 기쁨도 슬픔도, 애통으로 교차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날마다 바뀌어가고 있다.

혼자 지내기가 어려운데? 자주 속상한가? 늙어가는 내 모습에 짜증이 나는가? 성경이 읽기가 어려운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가? 삶에 감사가 없는가? 성령의 바람과 기쁨 부으심으로 우리는 행복자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항상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입술로 맘껏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포에버성가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다. 은혜의 찬양공동체 포에버성가대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한다.

찬양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당신의 형상대로 다듬어가고 계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영과 함께 있기를 기도한다.

포에버성가대 제8회 정기연주회
일시: 11월 9일 오후 5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

신앙에세이



김병조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열매 맺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인생에도 무수한 기다림이 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열매 맺기를 기다

리는 농부들,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청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거나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 등 인생은 수많은 기다림의 연속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다림이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무익하게 생각하고, 조급함과 원망이 쉽게 나타난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기다리는 기간 동안 두려워하고, 낙심에 빠지며,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사람들이 무익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

각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성경에서는 중요한 덕목과 성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다림의 시간은 무의미하게 닫힌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려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씨앗을 품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도는 기다림 중에 낙심하지 않고, 사명을 이루어가며, 고난과 싸워 승리하게 된다. 인내를 이루는 기다림의 시간은 결과를 보기까지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보내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선택한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고 의지하며 소망하는 역동적인 시간이다.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이 기다림을 통해 온전한 믿음과 승리를 누렸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늦가을의 문턱에서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을 묵상해보고자 한다. 이들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 평생 이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다. 결국 그는 노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안기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안나는 남편과 7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사별하고 84세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전을 지킨 여선지자였다. 안나 역시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는 노년까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들은 평생을 기다리며 기도했고 노년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던 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어둡고 혼란한 때였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정의와 공의는 행해지고 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배 아래 바리새파, 사두개파, 옛세네파, 열심당 등으로 사분오열되어 있었다. 이 혼란한 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결국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때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된다. 당시 하루하루를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들을 주목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던 이들의 삶이 누구보다 가치 있고 성공한 인생임을 증언하고 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 해가 지나가는 연말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쓸쓸함이 생기게 된다. 한 해의 결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에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 안에서 주의 구원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성령 안에서 결실의 때를 바라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는다. 질어가는 가을날 후회와 낙심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다가올 결실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본인이 받아서 상처 속에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를 이기고,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을 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수치스러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깊은 상처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 전에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치심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생물학적인 수치심(Biological Shame)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수치심입니다. 성장하면서 자연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어릴 때 사랑으로 용납 받지 못하면 심각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상처가 됩니다.

둘째, 성경적인 수치심(Biblical Shame)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우리가 느껴야 하는 수치심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셋째가 문제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에게 남아 있었던 상처로 인해 우리를 속박하는 수치심(Binding Shame)입니다. 이 수치심에 얽매어서 스스로를 올바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올바른 자화상을 갖지 못하며,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주는 수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땅히 느껴야 하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증인된 삶을 살면서 받았던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었다면 그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

와 아픔이 상처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극복하고, 치유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빛으로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았을 것입니다.

유명한 애니메이션 라이언킹(Lion King)의 줄거리를 다 아실 것입니다. 무파사라는 사자가 다스리는 동물의 왕국에서 그의 동생이 형을 반역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무파사의 아들 심바라는 작은 사자를 이용해서 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땅을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무파사의 아들 심바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자책감, 죄책감, 무력감, 자신에 대한 실망감, 모든 자신의 실수가 상처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바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심바를 사로잡고 있던 죄책감, 실패감,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속박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의 이력이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이력으로

볼 때 그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 훨씬 훌륭했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 많이 일했습니다. 그가 더 많이 일한 것은 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잘못된 동기가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용납 받으려는 영적 굶주림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일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상처에서 비롯된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자녀로서 용납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은 더 많이 수고해야 인정받겠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알려면 내가 진짜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신이라는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실 수 있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 진정한 자아가 되어간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물려받은 유전과 성장배경, 환경과 자연적인 욕망에 더욱 지배당하게 된다.”

죄와 상처에 지배받고,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자신의 욕망에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점점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매우 소중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대한민국의 복음화 역사



채현석 선교사
(2000 선교본부
선교역사연구실)

대한민국은 복음화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화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아시아에서 기독교 교세가 높은 나라로는 일찍이 유럽과 미국의 식민지배 영향으로 국민의 90% 이상

이 가톨릭 교인인 필리핀, 초기 기독교 및 중세 십자군의 영향으로 30% 이상의 복음화율을 유지하고 있는 레바논, 가톨릭을 포함해서 인구 25% 이상의 크리스천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등이다. 그밖에 아시아에서 미전도종족 수준(기독교인 숫자가 인구 5% 미만)을 넘은 나라들로는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바레인, 스리랑카, 중국, 대만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복음화는 130여 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평양이 ‘동

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조선의 경이적인 복음화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과 은혜다.

한국 선교의 첫걸음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인천항 입항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1985년을 ‘선교 100주년’으로 기념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전 중국 동북지방(만주)이나 일본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 및 기독교인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국인들이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이 신앙 공동체까지 형성하고 있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개관해 보면 19세기 말 시작된 한국 기독교 역사는 1910년 조선(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망할 때까지를 그 첫 시기로 본다. 이때 한국 기독교는 역동적 복음 전파와 초기 교회 건설, 민족의 암울한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애국운동에 동참했다.

두 번째 시기는 대체로 1910년부터 1930년까지로 조선 멸망 이후 민족의 구원과 희망이 되기 위해 3.1운동을 비롯한 항일민족운동과 농촌운동 등 근대화에 적극 참여한 시기다.

세 번째 시기는 1930년대부터 1945년 조국이 광복될 때까지다. 이때 한국 기독교는 교회 안팎으로 도전과 갈등을 겪으면서 적절히 응전하기도, 침묵에 빠지기도 했다. 당시 풍미하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도전, 새로운 신학의 유입에 따른 보수 신학과 갈등,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등 군국주의적 감압 통치 앞에서 휘둘러지고 순교로 점철된 시기였다.

조국의 광복과 한국전쟁, 1960년 제1공화국의 종말까지 한국 교회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권에 적극 참여해 근대적 국가를 세우는데 기여하고, 북한 공산정권이 일으킨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었다. 그러나 이후 이승만 정권이 독재와 부정부패의 늪에 빠짐으로써 한국 교회는 이상적인 기독교 국가 건설이라는 꿈을 접어야 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는 한국 교회의 교세가 비약적으로 커진 시기였다. 1910년 당시 전체 기독교인 수가 인구의 0.3%인 4만 명 정도였고, 1945년 광복 당시에는 인구의 1.5%인 38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후인 1955년 한국 기독교인 수는 100만

명을 넘었다. 1960년 200만 명, 1970년 500만 명, 1980년 천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인 나라가 되었다. 교인 수에서의 실질적인 부흥은 사실상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수적인 증가는 정체되기 시작했으나 지금도 한국은 가톨릭을 포함해 여전히 인구의 26%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급격한 양적 성장에 비해 신앙의 질적 성장과 성숙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1945년 이후 북한의 교회와 교인들은 공산정권의 압제와 전쟁 상황 속에서 막대한 피해와 박해를 받았고, 오늘날까지도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 형태로 어렵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공산정권에 협력하는 변질된 교회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한의 교회가 북한 교회와 교인들을 돕기 위해 많은 기도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여전히 공산 독재체제 속의 북한 교회와 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계속).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पाल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요일

아랍어 주일 14:00 분당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랑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당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진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가나선교중앙단원 모집

연속: 매주 금요일 10:00~12:3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Acts29홀

사역: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주일예배

성가대(월 2회, 주일 14:00)

자격: 찬양사역에 관심 있는 온누리교회

여자 성도

문의: 010-7931-7741

서빙고 권사회 버스 운전 알바 모집

분야: 천국환송예배 운전

자격: 온누리교인

조건: 대형 1종 면허

문의: 02-3215-3222

온누리교회 원두커피 입찰 시음평가

회 참가 지원자 모집

일시: 11월 15일 14:00~15:00

(서빙고 온누리교회)

11월 22일 16:00~17:00

(양재 온누리교회)

모집: 장로(서빙고 2명, 양재 2명), 권사(서

빙고 2명, 양재 2명)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일대일 심화과정 Make-up5

수강생 모집

일시: 11월 1일, 12월 1일 8:10~10:0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403호

신청: 문자(010-9265-1532)

문의: 02-3215-3220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가정예배 회복 프로젝트

실천 편

CGNTV



예배로 하나 되는 우리 가정
<아빠가> 실천 편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주일 오후 8시 30분 방송



실시간 가정예배 참여 소감

“가장으로서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게 큰 부담이었는데
<아빠가>와 함께하면서 좀 더 깊은 예배를 부담 없이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 가수 공희

“<아빠가>를 통해 아이들에게 예배를 강요하지 않아도
함께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아이들이 예배를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 조진영 성도



실시간 가정예배 참여 방법



STEP 1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검색

STEP 2

친구추가 후 안내에 따라
라이브 가정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TEP 1

유튜브에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검색

STEP 2

실시간 댓글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



컬러 3종류: ■ 브라운 ■ 레드 ■ 그레이

2020년 CGNTV 말씀달력을 판매합니다.

2020년에도 말씀달력을 곁에 두시고
매일 말씀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판매처 두란노서점 (서빙고, 양재) 문의 02-796-2243 (CGNTV 후원기획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CGNTV 미디어 사역에 사용됩니다.